

# 명지병원 · 예수병원 '낙동강 오리알'

### 의대 폐과 결정 서남대 구 재단과 대학 통폐합 추진 교육부 입장 맞아 떨어질 경우 인수전 물거품 될 수도

서남대 구재단 측의 일방적인 의대 폐과 결정에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자인 명지병원과 이에 맞서는 예수병원 등 2곳의 우선협상자 자격 여부가 주목된다.

서남학원 이사회는 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에 요구한 대학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 제출 시한이 8일로 다가온 데다 구재단의 일방적인 의대 폐과 결정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서남대 인수전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서남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명지병원 측에 6월 8일까지 재정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명지병원이 시한 내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정기여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열린 서남학원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0일까지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촉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결을 담은 공문을 명지병원에 전달한 바 있다.

명지병원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보완자료 제출 시한 연장을 다시 요청했다.

서남학원 이사회는 명지병원이 8일까지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정기여자 자격을 박탈하고 재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밥쌀 수입 저지**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밥쌀을 쌀 수입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농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모내기로 바쁜 시기를 악용해 밥쌀 수입을 추진했다고 농민들은 전했다. 또 이날 4차 TRQ(자유관세협정) 쌀 입찰 공고에 대한 전지입찰이 진행됐다.

명지의료재단은 향후 5년간 800억원(현물+현금)을 투입기로 약속했으나, 자금난을 겪으며 컨소시엄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명지재단이 서남대로 보낸 금액은 60억 원 정도로 전해졌다.

만약 명지병원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모색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수병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예수병원은 지난해 구 재단이 별도로 진행한 공모를 통해 재정기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교육부에 정상화계획서까지 제출하는 등 서남대 의대 인수전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 재단의 의대

폐과 결정은 이들의 서남대 인수전에 찬 물을 끼얹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서남대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를 취하려는 구재단 측과 대학 통폐합에 적극적인 교육부 간 입장이 맞아 떨어질 경우 이들의 서남대 의대 인수전이 물거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새만금 홍보

### 송하진 지사, 농생명산업 · 탄소산업 등도 소개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전북도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새만금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 깨끗한 생태자연과 풍부한 역사유적을 포함해 농생명산업과 탄소산업 등을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소개해 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가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2박3일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중 FTA 서명 1주년을 기념해 양국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협력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 중국측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등 7명의 지자체장이 참석하고 한국측은 전북을 포함해 8명의 지자체장(인천,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남, 제주)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찬란한 전통과 생동하는 미래가 공존하는 전북의 모습을 한옥·한식·한지 및 태권도 등과 함께 한·중 자치단체장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 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농생명산업과 탄소산업을 소개해 외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만금의 신항만, 국제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 추진을 소개해 환황해권 최고의 물류기지로 발전하는 비전도 보여줘 명품 새만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영수 기자

## 새만금청·신한은행, 새만금 투자유치 업무협약

새만금개발청은 7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과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잠재투자자 발굴 및 외투기업 유치 등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신한은행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만금 사업

홍보 및 입주 유망기업 공동 발굴, 투자자 발굴을 위한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추진, 지속적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병국 청장은 "신한은행은 국내에 탄탄한 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외투기업의 투자 창구가 되는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관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투기업 발굴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전북도, 지질명소 최종 후보지 24곳 선정

### '진안~무주권' 마이산 등, '고창~부안권' 선운산·운곡습지 등 각각 12개소

전북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관광활성화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 지질명소에 대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다.

7일 전북도는 제2차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에서 '진안~무주권'과 '고창~부안권'의 2개 권역에 최종 지질명소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별 지질명소 후보는 '진안~무주권'에 마이산, 구봉산 윤일암반일암 등 12개소와 '고창~부안권'에 선운산, 병비위, 운곡습지 등 12개소이다.

도는 이번에 선정한 최종 지질명소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 조만간

권역별 지질공원의 명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2022년까지 5~6개 정도의 국가지질공원을 추가 인증하겠다는 계획에 맞춰 도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토질관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한 자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여행사 상품 중 70%가 유네스코 지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유네스

코 브랜드 확보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제주도 수월봉의 경우 2011년 1만명이던 방문객이 2014년 기준 20만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는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자연공원(국립·도립 공원)과는 달리 인증을 받더라도 용도지구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위제한이 없다. 따라서 지질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도와 군은 추후 선정될 지질

명소에 대한 안내판 및 탐방로 정비 등을 6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질명소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지오브랜드(Geo-brand) 발굴·활용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소를 7월까지 진안(마이산), 무주(구전동), 고창(운곡습지), 부안(채서강)에 설치하고 지질공원 탐방 안내 및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도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운영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및 지오브랜드 발굴과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질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까지 각 군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수 기자

## 혁신도시 악취 3월~5월 크게 개선

7일 전북도는 혁신도시 지역의 3개월간(3월~5월) 악취 발생시기 및 악취 강도 모니터링 결과 악취 발생 감지일과 악취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7일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악취는 지난 3월 6일 감지됐지만 4월에는 4일, 5월에는 2일간 감지됐고 악취체감일 중 악취강도도 3월 1도(72%), 2도(25%), 3도 이상(3%)가 5월에는 1도(88%), 2도(12%), 3도 이상(0%) 등으로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강도는 1도가 최소감지 농도로, 1도(감지취기), 2도(보통취기), 3도

(강한취기), 4도(극심한 취기), 5도(참기 어려운 취기) 등으로 나뉜다.

또한,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지난해에는 10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으나 올해는 악취오염도 조사결과 10개 사업장 모두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지난해에 비해 사업장 악취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은 "하절기에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악취 배출사업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강양육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유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0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유변인협회, (사)한국유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l.com**